

— F-61 —

상부 위장관 출혈과 동반된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식도와 위의 이차성 유전분증¹⁾에

을지 대학병원 내과학교실

이상욱 · 고훈 · 최기영 · 이윤정 · 김안나 · 양현웅 · 차상우 · 이영숙 · 정성희

서론 : 다발성 골수종은 유전분증을 유발하는 amyloidogenic light chain을 합성할 수 있는 형질세포의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으로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약 30%에서 유전분증이 발생한다. 저자들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마비성 장폐색, 상부 위장관 출혈로 발현된 식도와 위의 이차성 유전분증 1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68세 여자가 평소 건강하게 지내오던 중 내원 10일 전부터 복통 및 복부팽만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장폐색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않아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내원시 활력징후는 혈압 100/70 mmHg, 체온 37.5 °C였고 복부 진찰 소견에서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5,710/mm³, 혈색소 9.0 g/dL, 헤마토크리트 27.5%, 혈소판 176,000/mm³였다.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혈중 요소질소 40 mg/dL, 크레아티닌 1.7 mg/dL, 총단백 5.7 g/dL, 알부민 2.1 g/dL, AST 33 IU/L, ALT 27 IU/L, 총 빌리루빈 0.6 mg/dL, 총콜레스테롤 101 mg/dL 이었고 혈청 전해질 검사에서 Na 151 mEq/L, K 2.6 mEq/L, Cl 118 mEq/L, 칼슘 13.1 mg/dL, 인 3.9 mg/dL, 이온화 칼슘 1.38 mmol/L, iPTH 7.7 pg/mL 이었다. 소변 검사는 비중 1.010, PH 6.5, 요단백(-), 요당(-), 적혈구 1개이하/HPF, 백혈구 1개이하/HPF 였다. 환자는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서맥과 저혈압을 동반한 부종과 의식 저하가 동반되어 혈액투석을 시행하였다. 혈액투석 시행후 증세호전 보이던 중 제4 병일째 갑자기 토혈 발생하여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하였다. 내시경 소견상 식도 전체에 미만성의 궤양성 병변 및 출혈 소견이 보였으며, 위 전정부에 점막 비후 및 궤양이 관찰되었다. 조직검사상 혈관 벽, 고유층 및 고유근층에서 만성 궤양 및 아밀로이드 침착이 관찰되었고, 형질 세포로부터 기원하는 일차성 아밀로이드증이 의심되는 병변을 보였다. 면역화학 검사상 congo red에 양성 소견을 보였다. 요 단백 전기영동에서 tubular protein과 Bence-Jones protein이 보였고, 혈장 단백 전기영동에서 b 분획에 M-peak가 관찰되었다. 골수 검사상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되었으며 환자는 vincristine, adriamycin, dexamethasone으로 치료하였다.

— F-62 —

우연히 발견된 위벽 밖에서 복강내로 돌출된 위간질 종양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이범재 · 최재현 · 김동일 · 김세윤 · 정성우 · 구자설 · 임형준 · 이홍식 · 이상우 · 김창덕 · 류호상

서론 : 위장관 간질종양은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간엽성 종양으로, 위장관 중에서 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10-30%의 환자는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며 복통, 위장관 출혈, 복부 종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대부분의 위장관 간질종양은 내시경에서 내강 내로 돌출된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장간막, 대장, 후복강 등의 간질종양은 복강내 종괴의 형태로 위장관의 침범 없이 진단 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벽 밖으로 돌출된 형태를 보이는 위간질종양은 드물게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위벽에서 복강내로 돌출된 위간질 종양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 이다. **증례 :**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50세 남자가 단상흉부촬영에서 우상엽에 결절이 관찰되어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 촬영에서 복강내 종괴와 관찰되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은 정상 소견이었으며, 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 다수의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조직소견은 고도의 이형성증을 보이는 선종이었다. 복부컴퓨터단층 촬영에서 복강내 8.5 cm 의 종괴가 발견되어 복강경으로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조직은 위저부에서 기시하고 있었으며, 병리조직학적검사에서 C-Kit 양성인 위간질종양으로 진단되었으며, 유사분열지수(mitotic count)는 50 HPF (high-power field) 당 4로 중등도 분화도를 보였다. 환자는 절제술 후 특별한 후유증없이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